"수국 물든 고흥 쑥섬으로 미식 여행 떠나요"

청정 고흥바다 별미 하모 제철

수국 군락·녹동 장어거리 추천

고흥군이 수국으로 물든 외나로도의 작은 섬 쑥섬으로 미식 여행을 추천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의 여름은 산과 들은 푸르름이 더해지고 바다는 더 깊은 빛깔로 변하고 푸른 물결과 함께 청정 자연의 숨결을 품고 있어 어느 계절보다 여름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매년 6월이면 고흥 외나로도의 작은 섬 쑥섬(애도)은 수국이 피어나는 계절을 맞아 오색의 화려함으로 물든다. 푸르른 고흥의 바다를 끼고 다채롭게 펼쳐지는 수국 군락은 마치 수채화 같은 풍경으로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든다.

정성껏 가꾼 수국 정원은 방문객에게 자연의 색채가 주는 치유를 선물하고 섬을 둘러싼 해안길은 걷는 이로 하여금 고요한 바다와 벗 삼게 한다. 쑥섬이 주는 감동은 단지 그 아름다운 꽃에만 머물지 않는다. 바로 고흥을 대표하는 별미 하모(갯장어)가 제철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흥 바다에서 자란 하모는 여름을 대표하는 보양식 중에 하나다. 우리에게는 갯장어로 더 익숙한 하모는 청정 고흥 바다의 풍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여느 생선과는 다른 부드러움과 담백함, 그리고 씹을수록 깊어지는 감칠맛은 하모만의 매력이다.

하모를 회로 먹을 때와는 달리 촘촘한 간격으로 솜씨 있는 칼집을 낸 하모를 하모뼈로 만든 육수에 살짝 데쳐 신선한 야채와 함께 먹으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과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이 입안 가득 퍼지고 건강함까지 느낄 수 있다. 〈사진〉

녹동 장어의 거리에 자리 잡은 하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샤브샤브는 물론 하모회, 하모죽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하모의 맛을 즐길 수 있고 현지에서는 하모를 여름 보양식으로 여기어 기력을 북돋는데 제격이라고 말한다.

수국과 하모, 이 두 가지는 고흥의 여름이 선사하는 특별한 추억이다. 짧지만 강렬한 수국의 계절과 오직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하모 샤브샤브, 이 둘이 만나는 고흥의 여름은 고흥을 찾는 여행객에게 오감으로 기억되는 시간을 제공한다. /박현진 기자

옛 장흥교도소에 '문학갱생 프로젝트' 본격 추진

미디어아트 등 문학·관광 콘텐츠 조성

김성 군수 "문학 치유·인문 중심지 도약"

장흥군이 폐교도소(사진)를 문학·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학갱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장흥군은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확보한 사업비는 옛 장흥교도소에 지역 문학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교육이 결합된 '문학갱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문학갱생 프로젝트는 장흥이 보유한 풍부한 문학 자산과 옛 장흥교도소라는 공간의 역사적 상징성을 융합한 장흥군만의 독창적인 문학관광 콘텐츠다.

장흥군은 옛 장흥교도소 내 옛 취사장을 활용해 '문학·힐링·자유·사색'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에는 과거의 어둠이 깃든 공간에서 빛과 언어, 이미지로 재탄생한 장흥 문학의 정수와 아름다움을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장흥군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북캠프도 오는 10월 중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의 치유적 가치와 자유의 의미를 함께 사유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청소년들의 1박2일 기록과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돼 교육적 활용도와 콘텐츠 확장성을 함께 도모한다.

장흥군은 이번 북캠프 운영을 연차적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해 청소년들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자기 성찰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문학갱생 프로젝트는 장흥군이 보유한 문학적 자산과 교도소라는 공간의 사회적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장흥을 문학 치유와 인문 여행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청년농업인 현장 소통

영농 정착 지원 등 논의

담양군은 "최근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15명과 정철원 담양군수, 군 농업유통과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메타세쿼이아랜드 일원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사진〉

정철원 군수는 "담양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들과 편안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며 "저도 한때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어려운 군수가 아니라 삼촌 같은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건의사항, 정책에 대한 질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영농 초기 정착 지원 확대 ▲농업 교육 기회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직접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니 큰 힘이 됐다"며 "청년농업인에 대한 담양군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정 군수는 "이번 의견들을 농정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최근 광양만권 율촌1산업단지에서 구충곤 광양경제청장, 정인화 광양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의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광양경제청 제공〉

광양경제청, 율촌산단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 준공식

전구체 국산화…안정 공급망 확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전남 광양만권 율촌1산업단지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연산 4만5천t 규모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과 사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약 2.2만㎡(약 6천800평) 부지에 조성됐으며,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구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전구체를 국산화함으로써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물론,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완성에 한 축을 더하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앞서 율촌산단 내 양극재 공장을 가동 중이며, 이번 전구체 공장까지 갖춤으로써 그룹 차원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을 갖추게 됐다.

특히 물류 및 유틸리티 인프라가 집적된 율촌산단의 입지 장점 덕분에 생산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 준공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며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스코퓨처엠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시민의 상·자랑스런 여수인 추천 접수

8월8일까지…지역개발 등 7개 분야

여수시는 11일 "오는 8월8일까지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하거나 탁월한 재능으로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추천 부문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 등 7개다.

후보자는 시장,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도 추천 가능하다.

'자랑스런 여수인'은 관계, 법조계, 재계, 학계, 군인, 체육,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중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출향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여수시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받아 관계 서류와 함께 시청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061-659-31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상인 만큼 전 시민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로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군, 결혼 60주년 이상 부부 리마인드 웨딩

주암댐 인근 거주 어르신 14쌍 회혼식

보성군은 "최근 복내천염공예관에서 결혼 60주년이 지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최하고 (사)천연염색 숨이 주관했으며, 행사장은 한옥 배경으로 전통미를 살려 연출됐다.

주암댐 주변 지역 4개 시군 14쌍의 노부부와 가족, 내빈, 하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황혼을 맞이한 부부들의 사랑과 헌신을 축하했다.

회혼식은 성혼 선언, 부부간 사랑 고백, 자녀 영상 편지, 축하 덕담, 백년가약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손주들이 함께한 행진과 사랑 고백 토크쇼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평생을 주암댐 주변에서 살아오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한 부모들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중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보성군 주암댐 인근 지역 어르신 14쌍이 복내천염공예관에서 6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며 전통 회혼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보성군 제공〉

'생태문명 전환 시동' 순천에코칼리지 개학

다국적 청년 12명 공동생활·생태교육

생태문명도시를 선언한 순천시가 청년들과 함께 실천적 생태전환 교육의 첫걸음으로 '순천에코칼리지'를 개강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또 다른 삶과 세계를 꿈꾸는 실험학교'를 표방하는 순천에코칼리지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개학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시의회의장, 자문위원, 교수진,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잉볼 공연, 학교 소개, 현판식, 교수와 학생 간 상견례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순천에코칼리지 1기 학생은 총 12명으로, 19세에서 36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서울, 광주, 창원, 그리고 미국,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경험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순천에서 공동 생활을 하며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한 이론과 실천 교육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순천에코칼리지는 기존의 정규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천=정기 기자